다산포럼

한 사람만을 위한 주간지(週刊誌)

성 염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조너던 프라이스와 앤서니 홉킨스 두 영국 배우가 프란치스코와 베네딕토 16세 교황에게 '빙의라도 한 듯 완벽한 연기'를 보인 영화 '두 교황'이 유럽에서도 국내에서도 상당수 관객을 불러들이는 중이다. 한데 2003~2007년 바티칸에 대사로 근무한 필자가 보고 느낀 바가 화면에 그대로 재현돼 감회가 깊었다. 특히 주연 배우 프라이스가 어느 인터뷰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뽑히고 나서 그의 '말씀'들을 귀담아 들어왔어요. '차카게 살자!'는, 하나마나한 소리가 아니고 국제 정의와 환경 문제, 크리스천들이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사실상 배금주의자들임을 신랄하게 경고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기에서도 감정 이입이 되더라구요"하던 말에 공감이 갔다.

역사상 어느 한 인물을 두고 주간지(週刊誌)가 발행되는 전례는 없었는데 이탈리아에서만도 '일 미오 파파(Il Mio Papa): 나의 교황'이라는, 120면짜리 주간지가 가판대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3년 3월 13일, 세계인들이 바티칸 시스티나 굴뚝에서 흰 연기를 기다렸듯이,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일반인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의 음성이 어디서 울려오나 두리번거리고 있음을 방증한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El Pais)는 나이 팔순에 교황이 된 지 4주년을 맞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터뷰를 가졌다. 트럼프가 취임하던 2017년 1월 20일이니 3년 전이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포퓰리즘 정권들이 타인종 공포와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현상을 우려하시는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교황은 즉각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간다. "경제 위기는 경각심과 공포를 조장합니다. 내 견해로 유럽 포퓰리즘의 가장 뚜렷한 예는 1930년대 독일입니다. 독일은 붕괴되었고 그 자존심을 되찾아 줄 지도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아돌프 히틀러라는 젊은이가 '내가 해내겠소!'라고 나섰습니다."

"그럼 바로 이 시간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정권을 인수하고 있는데 성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성급하게 예언자 행세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십시오. 머잖아 보일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우린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자존심을 돌려줄 구세주를 찾는다면서 장벽을 쌓고 전깃줄을 두르고 다른 국민을 마치 우리 자존심을 훔쳐 갈 사람으로 간주할 만큼(트럼프의 첫 권력 행사가 멕시코 국경에 담장을 쌓으라는 명령이었다) 말입니다. 1933년의 독일은 국민의 자존감을 되찾아 줄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물색했는데 그자는 그들의 자존심을 비틀어 놓았고 그 뒤 무슨 사태(제2차세계대전)가 발생했는지는 우리 모두가 압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4년 방한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시작하여 열 번 넘게 반복한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라는 말이 맘에 걸린다.

며칠 전 미 상원의 탄핵 부결로 기고만장하게 쌍권총을 차고 나온 카우보이가 제일 먼저 저지른 만행이 '환경 정책 뒤집기'였다. 그동안 멕시코 국경에 담벽 쌓기, '파리기후협약' 탈퇴, '이란핵협정' 탈퇴, 팔레스타인 사태의 핵심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확정해 버린 횡포에서 프란치스코의 예언은 적중했다.

북한과의 싱가포르 협정을 헌신짝처럼 묵살해 버리고서는 한 정부에 몇 배의 미군 주둔비를 강요하면서, 보라는 듯이 드론을 띄워 이란 최고사령관을 폭살하고 트위터로 띄웠다. 이러한 트럼프의 오만은 그리스의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정의(正義)에서 보듯, "강자는 원대로 하고 약자는 당할 대로 당할뿐"이라던 조롱을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교황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마치 우리 국민에게 건네듯 이렇게 매듭을 짓는다. "저때도 모든 독일인들이 히틀러에게 투표했지요. 히틀러가 정권을 찬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는 여기에 희망을 걸고 지켜봅니다."

NGO칼럼

일제 피해자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역사 인식

이 국 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상임대표

지난해 한일 관계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 산업의 주요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에서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는 '백색 국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 그로 인한 후유증은 아직도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라고 불러 왔지만, 사전적 의미로 보자면 '보복'이란 '남에게 받은 해를 그만큼 되돌려 주는 일'을 뜻한다는 점에서 볼 때, 보복이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인 '경제 침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일 관계의 뿌리에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가 있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음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미쓰비시 중공업을 비롯한 피고 기업들은 전혀 배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사이 지난해만 하더라도 광주에서 소송에 임했던 피해자 세 명이 한을 풀지 못하고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피해자들은 어쩌면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본 기업들의 무모한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베 정권의 압력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행태는 일본 정치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전범 세력이 전후 심판을 받거나 청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일본의 지배 세력으로 남아 현재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아베 신조 총리만 하더라도 고조부는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오시마 요시마사로,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을 배웠으며, 친할아버지는 중의원 의원이었던 아베 간이다. 또 외할아버지는 제56·57대 내각 총리대신을 역임한 기시 노부스케이며, 작은 외조부(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는 제61·62·63대 내각 총리대신을 역임한 사토 에이사쿠이다.

이렇듯 침략 전쟁의 광기가 넘치던 시절에 일본 정치를 쥐락펴락했던 가문에서 성장해 정치를 세습한 아베에게 애초 올바른 역사 인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을지도 모른다. 아베 정권이 막무가내로 나오다 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본 정치 현실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인식도 고개를 내밀고 있다. 아베 정권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기억·화해·미래 재단 법안'이다.

'문 의장 안'은 한일 양국 기업 및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치,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제10조), 국외 강제 동원 피해자가 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으면 '제3자 임의 변제'로 규정해 민사상의 강제 집행 권한은 포기된다.(제18조) 또한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재판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9조)

한마디로 사죄와 반성 없는 '기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역사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문 의장 안'은 일본과 전범 기업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우리 국회가 나서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말할 것 없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가해자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들어주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법안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법안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거론한다는 것이다. 죽기 전에 한 푼이라도 손에 쥐어 보고자 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다. 어느새 피해자들의 궁박한 처지가 오히려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법안을 강행해야 하는 이유로 둔갑되고 있는 것이다.

오른 손이 주든 왼손이 주든 피해자들은 그저 돈만 받으면 된다는 인식은 생각할수록 끔찍하다. 그 가벼운 정치인들의 역사 인식이 어쩌면 이 문제를 광복 75년이라는 세월까지 이르도록 한 것은 아닐까.

기 고

기억과 참여로서의 보훈

하 유 성
광주지방보훈청장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여 2월 10일 현재 2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국민들은 보건 당국의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잇단 확진 소식에 낙담하면서도 동요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한 교민을 수용한 아산과 진천에서도 서로에 대한 응원과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로 희망이 싹트고 있다. '우리는 아산이다'(We are Asan) 운동은 자칫 질병을 얻은 사람이나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치달을 뻔하였던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보훈이 아닐까.

지난 1월 21일 국가보훈처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강한 안보, 책임 보훈'을 주제로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하였다.

먼저,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룬 세 축이자 보훈의 세 영역인 독립·호국·민주 분야 10주기를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기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 분야는 '청산리·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계기로 항일 독립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행사를 마련한다. 역사 대장정, UCC공모전 등 다양한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해외에 묻힌 독립 유공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호국' 사업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사람 중심의 추모와 평화의 장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이제 연세가 아흔에 접어든 6·25 참전 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UN 참전국과 참전 용사에게도 우의에 감사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미국 워싱턴에 건립될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조성을 위한 디자인 설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 분야는 4·19 혁명 60주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등 정부 기념식을 민주화 운동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장소에서 개최하고, 각 민주 운동별 특색을 살려 이야기를 만들어 전달함으로써 국민 공감대를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정부 부처간 인정 기준이 다소 다른 전상(戰傷)·공상(公傷) 기준을 개선하여 금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환경 변화에 걸맞게 보훈 대상자 인정 기준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훈 심사 대기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심의제 도입, 보훈 심사 위원 정원 확대, 시민 참여 제도 법제화도 추진해 나간다.

세 번째, 국가 유공자 본인과 유가족 중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보훈 보상 정책도 확대한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 보훈 대상자 가족들을 위한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상금과 수당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도 추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과 수준을 정립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여생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의료·요양·안장 서비스도 양적·질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금년 말에는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가 문을 열고, 노후화된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2022년까지 신축하여 적시에 치과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광주·수원·김해·대구·대전·남양주에서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을 올해 11월에는 원주, 2021년에는 전주에 개원할 계획이다. 국립묘지는 제주국립묘지와 경기도 연천현충원을 새로 조성하고, 대전현충원과 이천호국원은 묘소를 대폭 확충한다. 이를 통해 현행 5만 6000기의 안장 능력을 2025년까지 28만 1000기로 늘려 보훈가족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빈틈없이 대처할 계획이다.

보훈은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이고, 이웃을 위한 희생이 가치 있는 삶임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일이다. 나라를 되찾고, 지키고, 바로 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각각의 시기와 형태는 다르지만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황현산 선생은 "그날의 기억밖에 없는 사람은 그날 벌어 그날 먹는 삶보다 슬프다"(밤이 선생이다)고 하였다.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겪어 온 흔적도 기억 속에 새기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성원들이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공동체는 새롭고 생생한 모습을 얻는다.

社 說

아카데미 4관왕 한국 영화 100년 만의 쾌거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한국 영화 101년 역사를 새로 썼다. 어제 미국 현지에서 열린 '2020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최우수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을 차지한 것이다. 92년 아카데미 역사에서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가 작품상을 받은 것은 한국 영화는 물론 아시아계 영화계에서도 처음이다.

더욱이 작품성만으로 평가하는 주요 3대상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을 모두 석권했으며 최고의 외국어 영화에 주는 국제장편영화상까지 받았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이미 '기생충'은 황금종려상을 포함, 시드니영화제 최고상, 밴쿠버영화제 관객상, 상파울루국제영화제 관객상, 전미 비평가협회 작품상과 각본상 등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기생충'이 지금까지 전 세계 50개가 넘는 영화제에서 들어올린 트로피만도 60개에 이를 정도다.

'기생충'은 거대 자본과 화려한 캐스팅의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표방하지 않았다. 대신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빈부격차라는 현실적인 소재를 스토리의 힘과 깨알 같은 디테일로 유머러스하게 풀어 나갔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완성도 높은 문제적 걸작'이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기생충'의 이번 4관왕 달성은 그동안 아카데미가 거대 자본 할리우드 작품과 백인 중심 시상으로 일관하며 끊임없이 비난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쾌거 중의 쾌거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번 수상이 일과성으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가 또 다른 황금기를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합 상영관에서 동일한 영화의 일정 비율 이상 상영 금지와 공평한 상영관 배정 등을 담은 법률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한국 영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제2, 제3의 봉준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 확산 보건교사 확충 서둘러야

신종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있지만, 전남 지역 초중고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곳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초중고 826개 학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488개로 59.1%에 그쳤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더욱이 소규모 학교의 경우 단독 배치가 아닌 순회 보건교사를 배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40%에 불과하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248개 중 34.2%(88개)에만 배치돼 상황이 더 심각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의 경우 338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과 광주 등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내 감염 여부를 점검하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모두 보건교사의 몫이다. 여기에 현황 보고와 가정 통신문 발송 등 행정 업무까지 처리한다. 따라서 지난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에는 두 명 이상 두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교사들은 단체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1차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학교마다 보건교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 수급 대책을 세워 만성적인 보건교사 부족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1907년으로 역사의 시계를 되돌려 보자. 그해 1월 의병을 일으킨 담양 출신 녹천 고광순(1848~1907)은 8월이 되자 부대를 지리산 피아골 입구에 자리한 연곡사로 옮긴다. 장기 항전해 대비해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해 힘을 모으기 위한 '근거지계'(根據之計)였다.

그리고 녹천은 문장가인 매천 황현(1855~1910)에게 격문을 써 줄 것을 청한다. 매천은 이를 완곡하게 거절하지만 못내 마음에 걸려 그날 밤 격문을 써 두고 기다렸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 녹천은 일본 군경의 야습을 받고 순절한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매천은 시신을 수습해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구례 동종(銅鐘)

그즈음 구례에서는 천사 왕석보(1816~1868)와 매천의 제자를 중심으로 민족의식 고취와 신학문 보급을 위해 학교를 세우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매천이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모연소'(募緣疏)를 직접 지었다. 이렇게 해서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에 사립 '호양(壺陽)학교'가 1908년 8월 문을 열었다. 학교는 1920년 3월 일제의 탄압과 재정난으로 문을 닫을 때까지 왕재일(광주학생독립운동 학생비밀결사조직인 '성진회' 총무로 활동)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해방 후 주민들은 다시 한번 학교 건립에 발 벗고 나섰다. 유지들이 땅과 기금을 내놓고, 천은사에서는 목재를 기부하는 등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았다. 그렇게 해서 1947년 개교한 방광초등학교(1999년 폐교)는 호양학교의 정신을 이었다.

호양학교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동종(銅鐘)이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전시되고 있다. 범종 모양을 한 종은 높이 37㎝, 밑면 지름 19.7㎝ 크기이다. 표면에 태극 문양과 비천상이 새겨져 있어 이채롭다. 작은 구리종에는 구한말 교육을 통해 꺼져 가는 나라를 구하고자 애썼던 매천과 구례 선각자들의 숨결이 배어 있다.

민족의식을 일깨우던 호양학교 동종 공개를 계기로 매천사(梅泉祠)와 옛 방광초등학교 교사(현 전남도교육청 지리산 학생수련장), 2006년 옛터에 복원한 호양학교를 연결하는 역사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송기동 문화2부장 기자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